세미나자료 2022-09

UNESCO WCECCE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3차 정책토론회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능발전

일시 2022. 9. 28 (수) 14:00~16:00

장소 서울 명동 유네스코 빌딩 11층 유네스코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회의원 고민정, 김미애, 안철수, 유기홍(이상, 가나다순)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주　　제: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능발전
- 일　　시: 2022. 9. 28(수), 14:00~16:00
- 장　　소: 서울 명동 유네스코 빌딩 11층 유네스코홀
- 주　　최: 육아정책연구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회의원 고민정, 김미애, 안철수 유기홍(이상, 가나다순),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일정표

사회: 박원순 박사(육아정책연구소)

구 분	진 행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20	환영사	**박상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축사	국회의원 고민정, 김미애, 안철수, 유기홍(이상, 가나다순)
14:20~14:50	기조강연	**유아교육·보육의 미래: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주제발표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변혁을 위한 과제와 역할**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장)
14:50~15:50	지정토론	좌장: **박남기** 교수(광주교육대학교)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이완정** 한국아동학회장 **이병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 **변경옥**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오필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15:50~16:00	종합 논의 및 폐회	

CONTENTS

환 영 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 ····· 1

축 사

고민정 (국회의원) ····· 3
김미애 (국회의원) ····· 5
안철수 (국회의원) ····· 7
유기홍 (국회의원) ····· 9

기조강연

유아교육·보육의 미래: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보고서를 중심으로 ····· 11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주제발표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변혁을 위한 과제와 역할 ····· 21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장)

토 론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장 ····· 41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 47
이완정 한국아동학회장 ····· 57
이병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 ····· 61
변경옥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69
오필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 79

환 영 사

박 상 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오늘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한 2022년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님,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님, 고민정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가 함께 해 주셔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든든한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유네스코의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를 국내에서 준비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1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는 2010년 9월 모스크바에 UN의 192개 회원국의 장관 및 유엔 대표단 1,000여명이 모여 '부국의 초석이 되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Building the Wealth of Nations)'이라는 주제로 역사적 논의를 펼친 바 있습니다. 세계 유아교육·보

육의 10년 뒤를 기약했던 두 번째 세계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간 연기되었다가 드디어 올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계회의를 주관하는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2017년도에 유아교육부(Ministry of Preschool Education)를 설치하여 국가발전의 초석인 유아교육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유아교육을 벤치마킹하고자 고려인인 초대 장관 아그리피나 신(Agrippina Shin) 장관님께서 유아교육부의 신설 때부터 우리 연구소를 방문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유아교육·보육 분야도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그리고 공사립 간 균형의 문제, 유보통합 등 국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안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변혁을 위한 논의와 더불어 세계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발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범을 보이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정·관계 및 학계의 대표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0년간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여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비전과 역할을 세계 각국의 대표들과 공유하고 또한 국제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각계의 대표자께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이 국가발전의 근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분야의 변혁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축 사

고 민 정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민정입니다.

「미래 유아교육보육의 변혁과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정책토론회 마련을 위해 힘 모아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님, 유기홍·김미애·안철수 의원님, 그리고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보편적 양질의 교육'을 위한 초석으로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달성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지난 10년간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돌봄 공백, 유보 이원화 체제 등 산재한 현안 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과학기술 발달,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등으로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시대적 변혁을 위해 다뤄질 정책 의제가 올 11월에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아보육회의의 의제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웰빙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기조강연을 해 주실 한경구 사무총장님, 주제발제를 해 주실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실장님, 좌장을 맡으신 전 광주교대 총장 박남기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해 주실 한국유아교육학회 정정희 회장님,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정효정 회장님, 한국아동학회 이완정 회장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이병래 회장님, 서울시청 변경옥 영유아담당관님,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오필순 원장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토론회가 우리나라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저도 국회에서 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 민 정**

축 사

김 미 애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미래 유아교육보육의 변혁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를 함께 마련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고 기조강연을 해 주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 학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경험하였듯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더불어 나아가, 이를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은 평생학습의 기초를 마련하므로,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오늘의 정책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가 개최하는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의 목적과 같이, 오늘 정책토론회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SDG 4.2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이행 의지 및 재정 증대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영유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영유아가 성별, 국가, 인종, 종교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제발제를 해 주실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실장님, 좌장을 맡으신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유아교육학 정정희 회장님, 한국아동학회 이완정 회장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이병래 회장님,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정효정 회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개최하느라 애써주신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 여러분과 모든 참석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책토론회의 논의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 미 애**

축 사

안 철 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오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느라 애쓰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뜻을 모은 교육위원장 윤기홍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국회의원님들, 관련 학회의 학회장님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기조강연을 해 주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님과 주제발제를 해 주실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님, 좌장을 맡으신 전 광주교대 총장 박남기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해 주실 한국유아교육학회 정정희 회장님,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정효정 회장님, 한국아동학회 이완정 회장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이병래 회장님, 서울시청 변경옥 영유아담당관님,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오필순 원장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모두를 인재로 만드는 교육혁명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인재를 성장시키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보육 현장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실물 중심의 교육을 강조해왔기에 최근의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평생교육의 초석이 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초중등 교육, 나아가 고등교육의 변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이기에 더욱 세심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 철 수**

축 사

유 기 홍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입니다.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래 유아교육보육의 변혁과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영유아 부문 워킹그룹으로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저출산의 충격으로 10년 후에는 경제와 사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일당백의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그 책임을 이웃과 지역사회, 국가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코

로나 팬데믹으로 가정환경에 따른 영유아 발달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네스코가 12년 만에 개최하는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의 국가 수준 의제 논의를 위한 사전준비 회의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계회의는 영유아 부문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지역적·국가적·전 세계적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협력과 연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영유아가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 기 홍**

01

기조
강연

유아교육·보육의 미래: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경 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영유아기 교육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열쇠이다."

– 마리아 몬테소리

이미지 출처: https://unsplash.com

발표 순서

파트 1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파트 2 보고서 내 유아교육 및 보육

파트 3 교육변혁 정상회의 개요

출처: 유네스코

파트 1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보고서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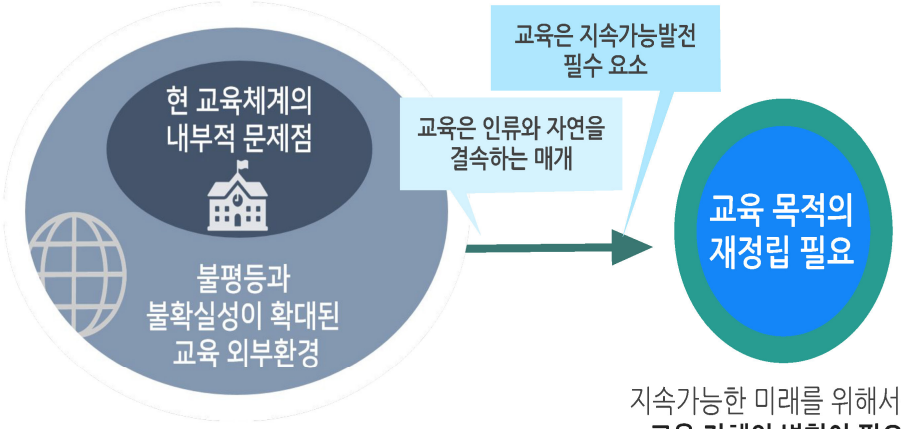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교육학계의 고전인 "*포르 보고서*"(1972), "*들로르 보고서*"(1996)에 이어 발간된 최신 유네스코 미래교육 보고서(202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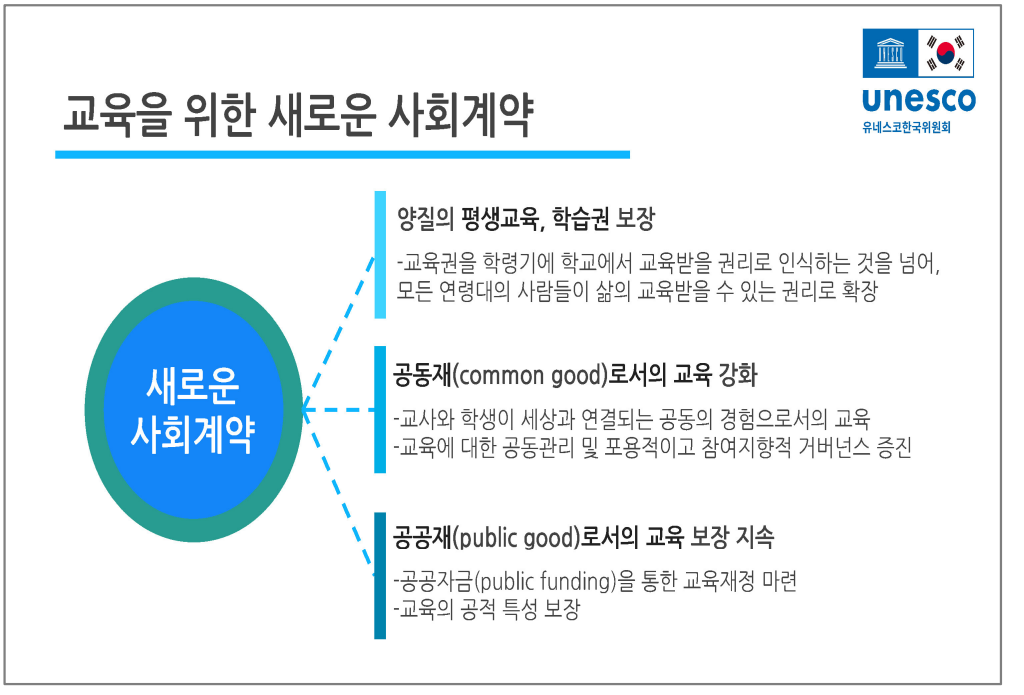
-2050년 너머의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교육담론을 촉진하고, 전세계적 교육 변혁 논의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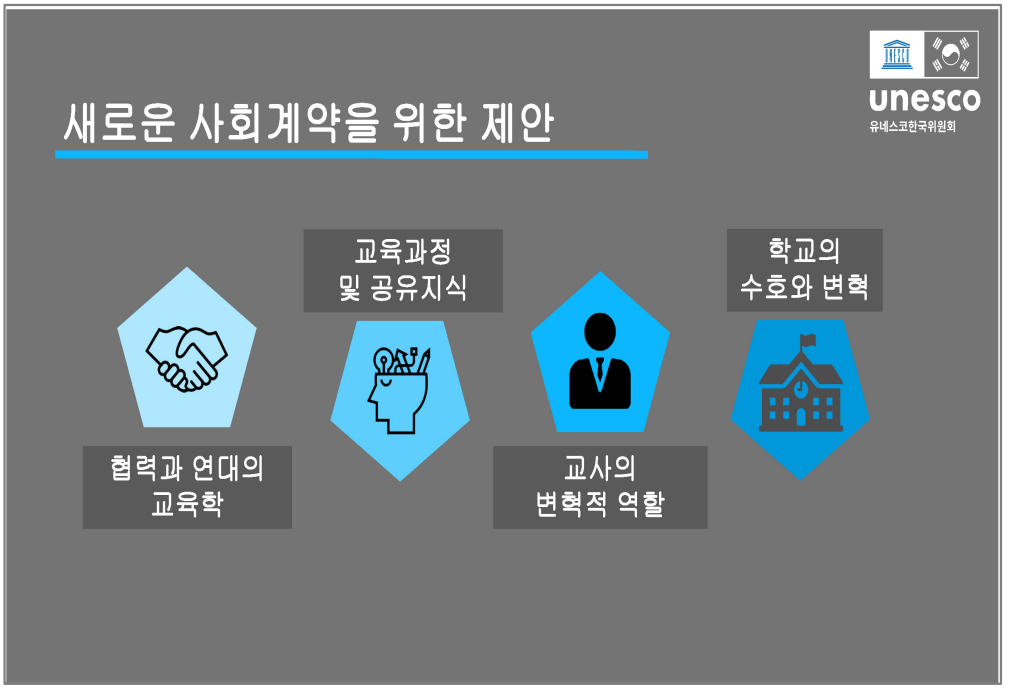
교육환경 분석결과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 자체의 변혁이 필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새로운 사회계약
양질의 평생교육, 학습권 보장
-교육권을 학령기에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삶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장
공동재(common good)로서의 교육 강화
-교사와 학생이 세상과 연결되는 공동의 경험으로서의 교육
-교육에 대한 공동관리 및 포용적이고 참여지향적 거버넌스 증진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교육 보장 지속
-공공자금(public funding)을 통한 교육재정 마련
-교육의 공적 특성 보장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제안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
교육과정 및 공유지식
교사의 변혁적 역할
학교의 수호와 변혁

파트 2
교육의 미래 보고서와 유아 교육·보육

보고서 내 유아교육·보육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양질의 유아교육은 모든 사회의 우선 과제가 돼야"

"유아교육은 모두가 함께 성취해야 하는 것"

"가장 주요한 불평등이 유아기 때 발생하기도 함"

"유아교육의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 형태 확대돼야"

"아이들이 이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접근방식을 바꾸어야"

파트 3
유엔 교육변혁 정상회의

유엔 교육변혁정상회의(미국 뉴욕, 9월 16-19일)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팩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 학습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을 최우선 글로벌 의제로 만들기 위함

5개 실천트랙(Action track) 및 챔피언 국가 선정
1) 학습환경(이탈리아, 나미비아), 2)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활기술(콜롬비아, 일본),
3) 교사(나이지리아, 루마니아), 4) ICT 교육(그리스, 싱가포르), 5) 재정(벨기에, 피지)

우리나라는 교육의 미래 국회 포럼 개최, 국가성명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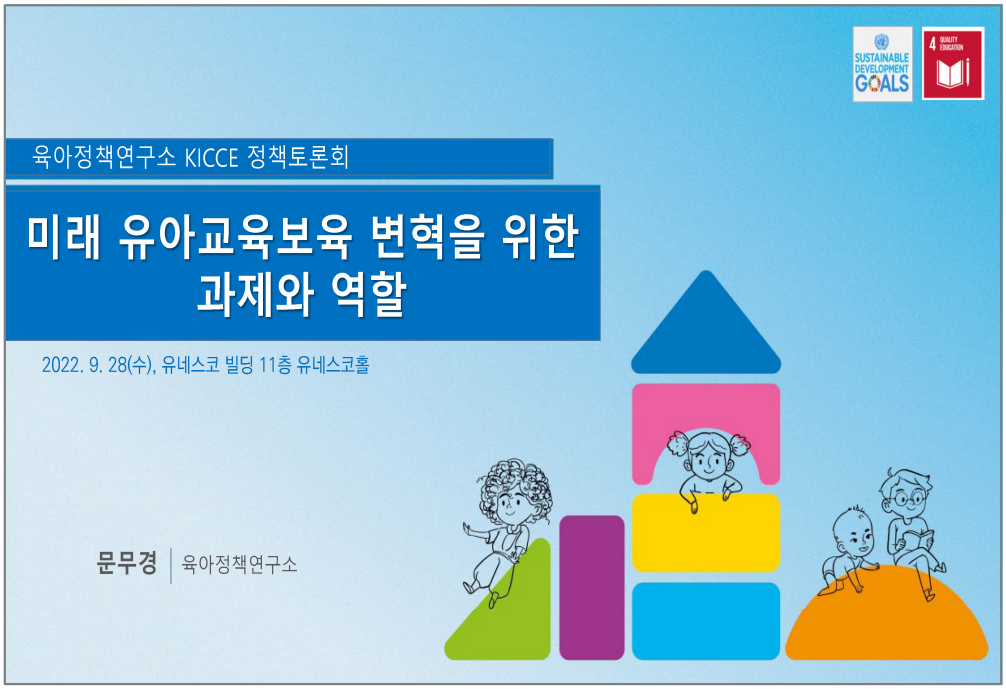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감사합니다
Thank you

02

주제
발표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변혁을 위한 과제와 역할

문 무 경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장



순 서

01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CECCE) 개최 배경과 경과

02 영유아부문 SDG 4.2

03 제2회 WCECCE 개요와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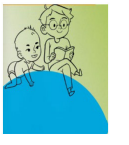
04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변혁을 위한 과제와 역할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정책토론회
2022. 9. 28(수), 유네스코 빌딩 11층 유네스코홀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orld Conference on ECCE) 개최 배경과 경과

취학 전 아동의 교육기본권과 권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

-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EFA) : Jomtien Declaration
  - "Learning begins at birth"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 아동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Young children are holders of the right not only to survive but also to thrive and develop to their fullest potential.
- World Education Forum (Dakar, 2000)
  - 특히,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확대와 향상을 위한 책무 강조
- UNESCO 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Moscow 2010)
  - ECCE as a social, human and economic development imper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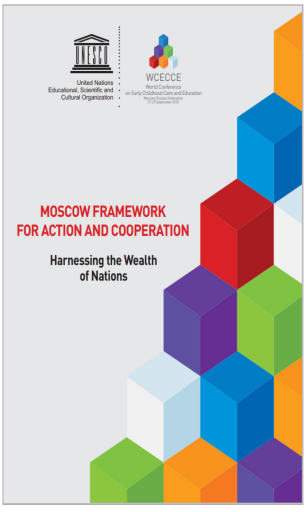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CECCE)

제1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orld Conference on ECCE)

- 취지: EFA 목표 달성 수준 평가 및 2015년을 향한 유아교육. 보육 정책 재정비
- 일시 및 장소: 2010. 9. 27-9.29, 러시아 모스크바
- 제목: ***Building the Wealth of Nations***
  (부국이 되기 위한 첫 기초단계로서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을 재천명하고 정부의 투자 확대를 강조함)
- 참석자: 192개 회원국, 약 1,000여명의 국가별 대표단(장차관), 국제기구와 단체 관계자 등

* 2007년도 유네스코 본부와 모스크바시의 유아교육과 보육 공동 프로젝트인 "Moscow's Education: from Infancy to School" 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모스크바에서 개최함.



제1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CECCE) 목표

- 발달적 유관성 및 권리로서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재확인,
- EFA 목표 1의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에 대한 성과 평가,
- 목표달성의 장애요인 규명,
- 향후 달성해야 할 목표와 대상 설정,
- 설정된 목표달성에 필요한 핵심인물 규명,
- 우수 사례의 국제적 교류 촉진

모스크바 성명서 발표
(Moscow Framework for Action and Cooperation)
- 유아교육보육에의 정부 투자 확대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배경과 의의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2015)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2030)
  - ✓ 빈곤 해소를 넘어 사회전반의 균형 발전 추구
  - ✓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적용 (-> 보편성 강조)
  - ✓ 환경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제도, 거버넌스 등의 영역으로 확대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각 영역에서
달성해야 할 공동목표 제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2개 지표

모스크바 성명서 및 SDG 4.2 이행 노력

-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 *(Asia-Pacific Policy Forum on ECC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CECCE 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Building the Wealth of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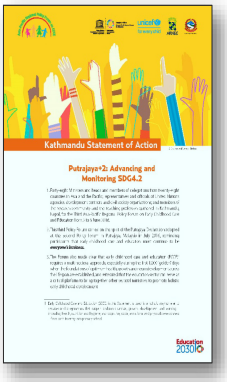
Asia-Pacific Regional Policy Forum on ECCE

- 제1차 한국서울 포럼 (2013. 9. 11-13)
  - *Are children ready for school? Are schools ready for children?*
- 제2차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포럼 (2016. 7. 19-21)
  - *The Transformative Power of Early Childhood: Innovations for Inclusivity and Quality*
    - ➢ 푸트라자야 선언문 *(Putrajaya Declaration)*
- 제3차 네팔 카트만두 포럼 (2018. 6. 5-6)
  - *From policy to Action: Unpacking Putrajaya*
    - ➢ *Kathmandu Statement for Action*

* 참고: 1st World Conference on ECCE : http://www.unesco.org/new/en/world-conference-on-ecce/goals-and-objectives/

모스크바 성명서 및 SDG 4.2 이행 노력

The Kathmandu Statement of Actions



5가지 우선 정책영역

- 충분한 유아교육보육 재정 확보
-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조정
- 모든 영유아를 위한 기회평등
-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 SDG 4.2 지표 모니터링

- Putrajaya Declaration (2016)
- Pasifika Call to Action (2017) for the Pacific Region.
- Buenos Aires Declaration (2017)
- G20 Initiativ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018-)
- Kathmandu Statement of Action (2018)
- High-quality ECEC systems, European Quality Framework for ECEC (2019), EU Council
- Child Guarantee (2021), European Council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정책토론회
2022. 9. 28(수), 유네스코 빌딩 11층 유네스코홀

영유아 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4.2

SDG 4(교육)의 7대 세부목표와 3개 이행전략

SDG 4 세부목표 달성 이행 전략

4a. 학습환경 — 아동, 장애인,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 모두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습환경 제공

4c. 교사 — 개발도상국, 최빈국 등에 국제협력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

4b. 장학금 — 개발도상국, 최빈국 등에서 선진국의 고등 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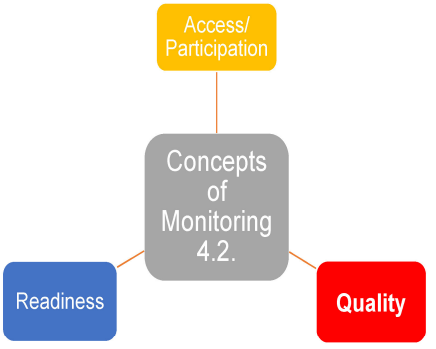
SDG 4.2 양질의 보편적 유아교육

SDG4 Target 4.2

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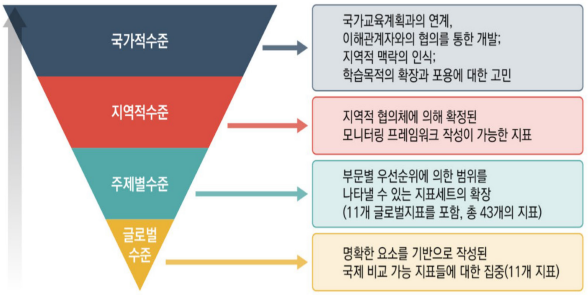
- 초등교육에로의 원활한 전이
- 평생학습 관점에서의 학업성취
- 사회, 경제, 건강 측면에서의 성과 향상

"No one left behind"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체계

- 각 영역에서 달성해야 할 공동목표에 대한 국가별 자율 이행과 책임 강조
- 글로벌/주제별 지표에 의거한 이행 모니터링 강조



Source : UIS(2016).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Digest.

SDG4-교육 2030 이행 체계

글로벌
- SDG-교육2030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 세계 교육현황 보고서 (GEM Report)
- 지표 모니터링 등

아태지역
- 아태지역 교육 2030 회의
- 국가조정관(national coordinator) – 교육부 국제협력관
- 사무총괄기관(focal point)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내
- 교육2030 국내 이행 협의체
- 주제별 대표기관 워킹그룹
- SDG4-교육 2030 포럼 등

SDG 4.2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표 1)

글로벌 지표

4.2.1.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24-59개월 남아와 여아의 비율

4.2.2. 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

주제별 지표

4.2.3. 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 환경 (home learning environment)을 경험하는 5세 이하의 영유아 비율

4.2.4. 취학 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서비스 이용률

4.2.5. 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 (number of years of free and compulsory pre-primary education)

국내 SDG 4.2 워킹그룹(2018. 7)

K-SDG 4.2 이행 모니터링 지표(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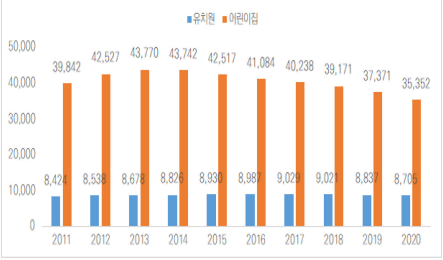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	K-SDG 4.2 포함	자료 수집
글로벌 지표 4.2.1 –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24-59개월 연령 남아와 여아 비율	O	X
글로벌 지표 4.2.2 – 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	O 0-5세 취원률 58% to 75% (2030)	O
주제별 지표 4.2.3 –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 (home learning environment) 을 경험하는 5세 이하의 영유아 비율	O	X
국내 추가 지표 – 국공립 기관 취원율 증가율	24% to 44% 2030년까지	O

+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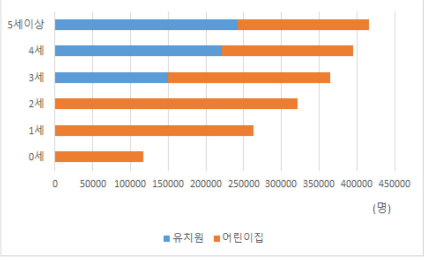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2017-2020)

연도	유치원 (3-5세)			어린이집 (0-5세)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국공립 이외
2020	612,253	178,758(29.2%)	433,495	1,239,338	252,212(20.4%)	987,126
2019	633,520	177,140(28.0%)	456,380	1,359,475	230,900(17.0%)	1,128,575
2018	675,559	172,125(25.5%)	503,434	1,409,680	199,335(14.1%)	1,210,345
2017	693,830	172,099(24.8%)	521,731	1,443,535	185,413(12.8%)	1,258,122

최근 10년 간 유치원·어린이집 수 비교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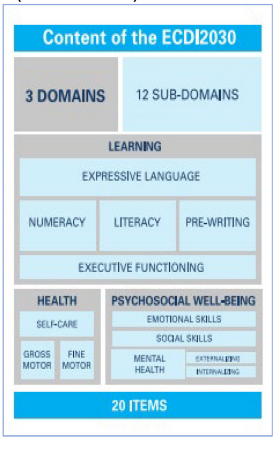
ECDI2030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dex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Launching a data revolu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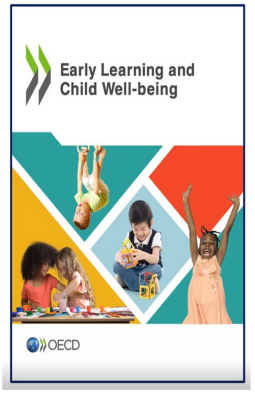
- 유니세프의 주도로 SDG4.2.1측정을 위해 ECDI 2030 개발 (2020. 11월)
- 24-59개월 아동의 주요 발달지표 측정
- 질문지, 질문지 인터뷰 가이드, 홍보 비디오 제작 및 활용
- 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 아동에 적용
-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 영역 발달 정보 확보

[참고]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 36-59 개월 아동 대상
- 언어/문해, 수리, 신체, 사회정서, 인지 발달 영역



International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being Study (IELS)(2022)



목적

- ✓ 유아기 총체적 발달과 웰빙을 위하여 생애초기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 지원
- ✓ 실증적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유아기 학습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 규명.

대상: 참여회원국의 만 5세아, 부모 및 교사(임의표집)

측정내용 : 발현적 문해(말하기/ 듣기), 발현적 산수(수, 모양, 패턴),
자기 조정력, 공감과 신뢰, 친사회적 행동(충동 억제 및 협력적 접근)

도구 특징:

- ✓ 흥미롭고 발달적으로 적합한 이야기와 게임(Stories and games) 등의 맞춤형 활동 기반 (Custom-made activities)
- ✓ 사전경험이 별로 필요없는 간단한 방식의 상호작용적인 tablet 사용 (Tablet delivery)
- ✓ 읽고 쓰기는 배제함 (No reading and writing)
- ✓ 일대일 지원을 통한 개별적 접근(One-on-One administration)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정책토론회
2022. 9. 28(수), 유네스코 빌딩 11층 유네스코홀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CECCE)
개최 개요 및 의제

코로나19 팬데믹 영유아 부문 코로나19의 영향과 전망

- **코로나 19로 인하여** *(Shaeffer, S. 2020)*
  - ✓ **영유아가 가장 치명적 영향을 받음.**
  - ✓ **각종 기존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성 불평등 심화**
    - 발달지연 유아, 농어촌지역 거주 유아, 여아, 이주민가정, 소수아 등
  - ✓ **다른 학교교육보다 유아교육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임.**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ECD 프로그램 등
    - 부모의 소득 감소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취원율 격감과 서비스 질의 저하 초래

➢ SDG 4.2 이행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력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 필요
➢ 가장 취약한 계층 지원에 우선순위 부여
➢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에 효과적인 교육활동 적극 권장 등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보육, 돌봄 서비스의 변화
✓ 가정내 양육 변화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조치 어려움
✓ 영유아, 부모, 교사의 코로나 스트레스 증대
✓ 유아 원격교육과 디지털 역량 지원 요구 등

출처: Shaeffer, S. (2020): The world post-COVID might be the world pre-Incheon—or even pre-Dakar, ARNEC.

유네스코'Global Partnership Strategy(GPS) for Early Childhood 2021-2030'

UNESCO *출처 : Maki Hayashikawa (2021). Global Korea Conference Education 2030

파리 선언 (Paris Declaration) (2021. 11월)

파리선언문(2021. 11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전 세계적 투자 요청
(A Globl Call for Investing in the Futures of Education)

- 국내 총생산(GDP)의 최소 4-6%를 교육에 투자.
- 공공지출의 최소 15-20%를 할당
- 공적개발원조에 국민총소득의 0.7% 할당,
- 교육ODA 비중 증가,
- 각 회원국의 교육예산 증대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 모색 촉구

교육의 미래보고서(2021. 11월)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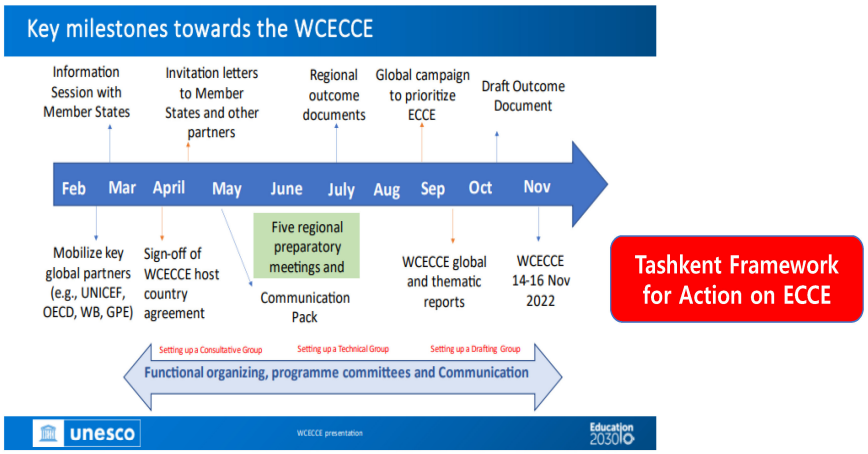
- **모든 인간에게 전 생애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공공의 노력과 공동재(common good)로서의 교육 강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자체의 변혁이 필요**
- **교육의 재창조**
  - 공유되고 상호의존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 공적 토론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유엔교육정상회의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
(2022. 9월)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CECCE) 개요

- 취 지
  - 지난 10년간의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의 발전 현황 점검 및 주요 이슈 논의
  - 향후 ECCE부문의 방향성과 세부전략 설정,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일 시: 2022. 11. 14-16
- 장 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주 제: Early Investment for Better Learning and Brighter Future
- 목 적
  - 세계 각국의 SDG 4.2와 여타 관련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사항 (progress) 축적
  - ECCE 정책 핵심전략, 최신 연구결과, 우수 실제(practices), 혁신사례에 대한 지식과 정보 교류
  - 모든 영유아의 권리와 평생학습과 사회인지적 발달의 필수적 기초로서 양질의 ECCE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
  - SDG 4.2 이행 촉진 및 ECCE에의 정부와 파트너의 투자 증대를 위한 우선순위 과제 규명, 추진 전략 개발 및 이에 대한 합의
  - ECCE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기회 확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연대 강화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CECCE) 준비과정



1. Inclusion, quality, and well-being

- 커리큘럼 & 교수법
- 형평성과 포용
- 영유아의 건강, 영양, 웰빙의 기초 마련
- 긴급상황의 서비스(코로나, 기후위기, 전쟁 등)
- 학교준비도와 평가의 역할

2. ECEC workforce and caregivers

- 영유아교원 양성과 자격 (모집, 성별 균형 등)
- 현직연수/보수교육
-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 원장 리더십과 장학
- 부모양육 지원

WCECCE 대주제와 세부주제

3. Programme innovations

- 뇌과학과 영유아기 두뇌발달
- 과학기술과 AI, 디지털 (윤리와 미디어 노출시간, 디지털 격차, 문해력 등)
- 공간 혁신과 실제
- 녹색환경
- 영유아 서비스 대안 모델

4. Finance, policy, and governance

- 데이터, 모니터링, 평가
- 정책 기본계획(0-2/3-5/6-8)
- 재정과 파트너십
- 서비스 질 평가
- 부처간, 다부문 협력과 조정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정책토론회
2022. 9. 28(수), 유네스코 빌딩 11층 유네스코홀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을 위한 과제와 역할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변혁을 위한 과제(1)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 발달과 학습 손실(특히, 취약계층 영유아) 회복을 위하여 불평등을 초래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생성,
- 코로나19 이전의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의 재가동
  (특수아 지원,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 건강, 영양 프로그램 등)
- 코로나19로부터의 발달과 학습 손실 완화 전략과 프로그램 설계
  (예: 부모지원비용 증대,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 지원 등)

포용적,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법

-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현장 실행, 0-2세 영아를 위한 놀이지원
- 정부의 정책적 열망과 부모 기대간의 간극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변혁을 위한 과제 (2)

영유아 교원 전문성 강화

- 소규모 기관, 사립기관, 낮은 자격기준의 교사, 초보교사 등에 코로나19 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생성
- 교사 처우 및 근무여건(근무시간,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검토
-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

ECCE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혁신

- 긴급상황 대비 계획 수립 및 이행
-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사회정서적 지원
- 모든 영유아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혁신적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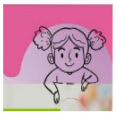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변혁을 위한 과제 (3)

SDG 4.2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와 분배
- 부처간 조정과 협력 강화 (유보통합 등)
- 지방자치 및 파트너십 강화
- SDG 4.2 영유아부문 이행 10년 계획 수립과 실행
  - 총괄 목표만 제시되어, 단계적 이행 목표 설정 필요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변혁을 위한 지식, 연구와 분석적 틀 (예시)

- 표준교육비, 보육료 단가
- 영유아의 발달기준(특히, 비인지적 발달)
- 국가기본계획 및 성과분석
- 네트워크, 파트너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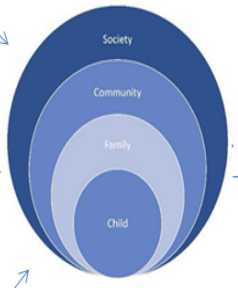


UNESCO 아태지역 본부의 분석틀: Asia-Pacific ECCE Eco-system

Enabling environment – legal, policy, guidelines

Workforce, facilities and curriculum

Responsive Care , Protection, Nutrition, Health, Sanitation and Early Stimulation,



EXTERNAL FACTORS
- Based on science and evidence
- Global and Regional Commitments
- Drive for equity – disparity reduction
- Climate change
- Covid 19 – Impact and recovery

INTERNAL FACTORS
- Sectoral nature of government
- Diversity of providers and programs
- Standards - workforce & program
- Quality of Services
- Low level of resources available

* UNESCO Bangkok (July, 2022) Asia-Pacific regional paper for WCECCE.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정책토론회
2022. 9. 28(수), 유네스코 빌딩 11층 유네스코홀

감사합니다

mgmoon@kicce.re.kr

32

03

지정토론

정정희 |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정효정 |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이완정 | 한국아동학회장

이병래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

변경옥 |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오필순 |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01 토론문

토론문

정 정 희
(사)한국유아교육 학회장 /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미래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 기후문제 대응,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국제적인 유아교육·보육 분야(ECEC) 동향을 돌아보고 우리나라 유아교육 보육의 주요이슈와 향후 방향과 과제 및 세부전략을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세계정세와 코로나19 상황, 기후문제, 저출산 고령사회 등과 같은 사회현상과 디지털 전환시대의 특성들은 영유아교육과 보육분야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터믹을 겪으면서 세계는 긴밀하게 연계된 지구촌으로서 함께 연대하고 상생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며 교육분야의 변혁과 재창조가 중요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2050년까지의 미래교육 방향을 조망하기 위해 「교육 미래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보장과 공공의 노력과 공동재로서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영유아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영유아교육이 공공재(public good)로서 정부 등을 통해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공동재(common good)로서 전 사회적 차원의 논의를 통해 함께 관리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현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가정책의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서도 아이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돌봄 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영유아 친환경 급식제공 및 영아반 교사아동비율축소,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구축, 영유아 발달전문가 파견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아교육 보육 공약은 교육의 출발선 평등과 유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 영유아 부문 지속가능발전교육 목적 및 개념 재정립 필요

○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기후변화, 저출산 등 유아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유아교육과 보육체계구축이 필요함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강화와 미래지향적 교육체제로의 개편을 통해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SDG 4.2 영유아 부문 장기적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

- 우리나라 영유아들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개념 정립과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목표설정 후 실행을 위한 세부 목표와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방향 및 내용, 국정과제에 포함된 유아교육 보육 정책과 연결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교육 목표 달성여부 모니터링 및 평가 필요

○ 영유아 부문 지속가능발전교육(SDG4)의 7개 세부목표 중 두 번째 세부목표 Target 4.2 로 포함됨

- 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에게 양질의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 보장

- 미래 유아교육 보육 변혁을 위해 영유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세계가 함께 영유아 관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책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음

- 양질의 영유아 서비스 접근성, 초등교육을 위한 준비, 유아교육의 형평성, 질, 포용성 제고 추구함: 무상교육과 보육 제공을 위한 재원확보 및 법제정을 통해 국가 책무성강화

-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임

- '영유아의 신체적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의 발달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가정학습과 양육환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환경과 주 양육자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 부모 상담 및 역량강화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기준 통합 및 상향, 전문성 강화: 영유아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관계있으므로 유보통합을 통해 자격기준 단일화

○ 양질의 교육에 대한 해석: 유아교육이 초등교육 준비를 위한 도구적 관점이 아닌 유아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함

- 모든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의 직무여건을 개선, 새로운 교수방법 도입이 필요함

- 학습준비도 개념: UNESCO 학습준비도, 학교준비도, 배움준비도, 교육준비도

- NAEYC 학교준비도는 유아 뿐 아닌 부모, 학교의 준비도를 포함하여 교육의 모든 주체가 변화해야 하는 것 강조

- OECD 준비도는 유아, 교육과정, 교원, 가정을 포함한 학습환경, 교수법, 정책 등을 연계하는 관점

□ 영유아 부문 지속가능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재원확보 필요

○ 해외선진국들도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유아교육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재정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 양질의 교육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우선적 재정투입이 중요함. 유아교육과 보육에의 재정투자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국제적 포럼에서 강조된 바 있음

- 영유아 부문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투자 증대가 필요하며 누리과정 지원비 확보와 유아교육·보육 이원화체제를 통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2030 SDG 4.2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비교 도구개발 필요

○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국내 영유아들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합일된 정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유아 주요 발달지표를 측정하는 국제도구(ECDI 2030가 개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유아를 위한 도구개발이 이루어지 않고 있음

- '긍정적 가정양육과 학습환경을 경험한 5세이하 아동비율' 목표달성 모니터링을 위한 합의된 개념과 측정도구도 부재한 상태임

□ 지속가능발전계획과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정책과의 일관된 방향설정 필요

○ SDG 4.2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 보육 정책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함

- SDG 4.2 지표별로 구체적인 목표 및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 않음

- 현재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고려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음

□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실현을 통한 안정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 및 실현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점,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변화와 저출산 등의 현상으로 인해 영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OECD 국가들도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교육과 보육에 함께 협력하여 하나의 관리체제 하에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주류임

- 부처일원화를 비롯하여 법과 행정, 재정, 교사자격 등 구체적인 단계에 까지 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보육 분야 국정과제 모두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나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먼저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 봄

- 유보통합을 통한 이원화체제의 단일화는 SDG 4.2 이행과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교육부(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 문무경(2018). 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과제. 발표자료. 교육2030
- SDG4.2 포럼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 교육: 국내 이행 현황 및 향후 과제] 2018. 10.30. 서울.
- 문무경(2022). 지속가능발전과 미래 유아교육의 과제: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55-72).
- 정정희(2022). '보육 유아교육정책, 새정부에 바란다' 국회의원 김미애, 육아정책연구소 주최 토론(pp.15-17).
- 한국교육개발원(2019). 한국의 SDG4 이행 현황 연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2). 2021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 보고서.

02 토론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의 과제와 역할

정 효 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 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

발제자께서 설명하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유네스코(2022)는 'Global Partnership Strategy(GPS) for Early Childhood 2021-2030'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효과적인 육아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팬더믹으로부터 회복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4.2(양질의 보편적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며, 5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다가오는 11월 14~1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제2회 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WCECCE) 개최하여 관련 의제를 심층 논의하고 각 국가 사례의 공유와 국제 수준에서의 향후 방향성 및 세부 과제와 전략을 설정하게 됩니다(발제자료 참조). 이 대회의 준비과정에서 토론을 맡게 됨을 무척 책임감 있게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유·보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1 SDG 4.2의 글로벌 지표와 한국의 이행 수준

발제자께서 제시한 [표 1]과 [표 2]를 살펴보면, 글로벌 지표에 대한 우리나라 이행 현황을 알 수 있음(발제 자료 참조).

1) [표 2]의 K-SDG 4.2 지표 중, 4.2.2(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와 4.2.3(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의 세부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함.

- 다만, 영유아 취원 수급조정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 필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수급정책이 부처별로 추진됨으로써 수급불균형 초래(이원체제의 불합리).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3항에 근거하여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치, 대체로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설치 운영.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에 따라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신설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치를 규정.
- 수급정책의 중장기적 전망보다는 국공립이용률 40% 충족 공약 달성에 초점.

2) [표 2]의 4.2.4의 긍정적인 가정학습과 양육환경을 경험한 5세 이하의 영유아 비율은 산출 근거가 모호하여 2030 목표치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그간 여러 연구에서 가정양육에 필요한 영유아기의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물질적 여건은 대체로 안정되게 보고되고 있음. 또한 역대 정부의 가정양육지원정책 관련 법 및 정책 강화에 따라 영유아기의 건강, 영향, 돌봄, 안전 등에 대한 우리나라 이행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짐.

- 1997년부터 정부지원으로 신생아 대상으로 페닐케톤뇨증, 선천성대사이상 등 무료검사 시행, 2006년부터는 6종의 검사, 그리고 2018년부터는 50여종의 항목에 대해 무상검진이 시행되고 있음. 이는 신생아 및 영유아의 장애나 사망률을 줄이는 중요한 양육지원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신생아 1,000명당 약 1~3명 정도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선천성 난청의 조기검진 및 발견, 2021년부터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 착용과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지능장애를 최소화하는 정책 이행(모자보건사업 안내, 2021).
- 6세 미만의 영유아는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서 무료건강검진 시행, 검진시기 및 항목 등 영유아 관련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제시,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 정보제공.

- 2009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16종의 백신 무료접종 지원으로 감염병 예방.
- 단, 기관유입 저연령화, 가정 학대비율 증가, 놀 권리에 대한 부모인식 등 검토 필요.

3) [표 2]의 4.2.1의 신체적 건강, 심리사회적 특성의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의 비율에 대하여 산출방법은 제시하지 않았고, 목표치는 특수유아 비율로 대체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나 일반교육의 접근으로는 그 효과를 얻기 어려운 영유아를 고려해야 함.

- 장애유형(특수유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비범주장애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영유아(장애위험영유아 또는 경계성영유아) 비율증가와 그 심각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됨.
- 영유아의 연령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유아가 속한 사회 또는 집단의 요구에 부적절하게 행동, 일상적인 지도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육아정책연구소, 2013).
- 애착문제 등의 심리·정서적 갈등, 대인관계 부적응, 적대적 또는 공격적 행동, 우울, 불안, 두려움, 산만한 과잉행동, 섭식 및 수면 문제 등 문제행동이 장기간 방치되었을 때 장애위험 초래.
- 서울시 영유아 대상 연구에서 15~28%가 정신건강 위험군(이경숙, 20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은 운동과다, 전반발달지연 등 0~9세 아동 정신진료 현황을 80,441명으로 보고함(한재금, 2021).
- 저연령의 기관유입과 장시간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의 업무소진야기, 학대유발 요인 또는 부모와의 민원 발생 요인이 되고 있음.
-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 주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에서도 경계성영유아를 위한 교사지원정책을 가장 선호, '건강한 마음 행복한 육아(마음건강프로젝트)'가 최우수상 수상, 영유아의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필요성 시사하고 있음(정효정, 2022).
- 발달지연이나 문제행동이 이후 발달단계에서 부적응과 역기능을 지속 또는 가속화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만성화되지 않도록 조기 중재가 불가피함.

- 여러 연구에서 어린이집의 전문 상담사 배치 및 거점식 상담사 순회운영 등 요구.

- 현행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업무지원으로는 역부족(정효정, 2020).

- 보육사업의 태생적 배경으로 어린이집의 급·간식은 매우 중시되었고 영양사 의무 배치가 유지되어옴. 동일선상에서 보육환경 변화는 전문상담사의 필요성과 의무 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영유아의 신체적 건강과 성장을 보장할 수 있으려면 심리·정서적 안녕 상태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2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CECCE)의 목표

본 대회에서 제시한 4가지 대주제와 세부 주제를 토대로 모든 영유아는 출발선 평등의 원칙에서 비차별적 권리와 영유아 최선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가치 지향에 반하는 현안 중심으로 논하고자함. 참고로, 현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는 총 1,184,716명이며 그 중 영아기(2018~2021년생)는 주민등록인구 1,166,589명 중 약 58%인 674,077명이 이용, 만 2세반의 경우는 90.9%임(보육통계, 2021).

1) 보육교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확립의 제도적 한계와 대안

① 한계점

- 개방형 양성체계로 인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낮은 평가(자격증 교부현황은 원장 402,098건/교사 1,512,157건, 한국보육진흥원, 2022).

- 보육교사 스스로 전문직업인이라는 주관적 평가, 직업의식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함.

-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이 만족스럽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긍정적인 태도로 최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됨(김현진 외, 2015).

• 보육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및 사회적 인식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부적절한 행동이 원인으로 보고됨(조용남 외, 2021).

-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교직원의 부정적인 이미지 가중

• 영유아보육법상에 보육교직원으로 명시되어있으나, 교육법상의 교원 지위는 확보되어 있지 않음.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전문가이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임.

- 보육현장에서 보육을 수행하는 '교사'로 불리면서도 '교원'으로써 신분보장은 받을 수 없고, '교권'이라는 용어 사용도 애매함

•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실직, 기관폐쇄, 극단적 선택 등 초래).

- 일례로 어린이집의 사건 결과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와도 부모들은 관할 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SNS, 카페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공격, 기관과 해당 교사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됨

- 현행 법령에는 교직원이 법적 불이익이나 폭행, 협박을 받았을 때 민사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가능,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정지원의 차별로 교사와 학급운영의 질 차이 초래(아래 예시 참조).

- 부모의 기관 선택에 따라 영유아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누리과정 유아 1인당 동일한 금액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 보육료에만 급·간식비가 포함되면서 사실상 비용 차액 발생

- 학급운영비, 교사 수당 등에도 차이 발생으로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격차 발생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현황(예시)

(유아 1인 기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2022)

구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월 280,000원**	**월 280,000원**
		급간식비	별도 편성 (서울, 부산 등 다수의 교육청 - 무상급식 지원)	(1일 약 2,500원 보육료에 포함) **월 약 50,000원**
			월 280,000원	급간식비 제외 실제 보육료 **월 230,000원**
		운영시간	4~5시간	8~12시간
			평균 운영시간당 보육료 **약 62,000원**	평균 운영시간당 보육료 **약 23,000원**
	방과후 과정/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70,000원**	**약 53,000원** ※ 2022 보육사업안내 예시 금액 [시도 전체 누리과정 유아 수×70,000원] - [시도전체 누리교사 수×처우개선비 300,000원] + 유아 1인당 8,140원 추가 지원
	학급 운영비		**학급당 최대 450,000원** ※ 교육청 별 20~45만원 지원	**없음**
교사지원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포함한 **수당 총액 최대 710,000원** (기본급 보조-교직수당) 월 25만원 (인건비보조) 월 3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장기근속수당-5년 이상) 월 3만원	**처우개선비 360,000원** (운영지원비에서 30만원 + 추가지원 6만원)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수당 있음**
			※ 지자체 및 시설유형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이 각각 다르게 지원되어 **<u>객관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음</u>**	
실제 격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슷한 조건을 위한 설정 - 누리과정반 1반 / 현원 20인(비장애아동) * 급간식비는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또는 별도편성에 따라 어린이집도 제외	
			• 보육료 5,600,000원 • 방과후과정 1,400,000원 • 학급운영비 450,000원 = 총 7,450,000원	• 보육료 4,600,000원 • 운영지원비 1,060,000원 • 학급운영비 0원 = 총 5,600,000원
			-1,790,000원	

② 대안

• 보육교사가 심리적·물리적·사회적으로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시급.

- 보육교사 스스로 주관적인 평가만으로 전문인으로서 보람을 가지고 직무수행에 주력하기는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필요

• 정책 수행의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를 방치하는 것은 영유아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짐. 특히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가장 직접적이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적환경임.

• 보육학과제 도입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 현재 유치원교사 자격취득과정과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 학점제 및 보육교사 교육원 등의 개방형 자격취득자에 대한 차별화된 업무 규정(근무경력만으로 초기 취득 자격급수 변동은 고려)

- 자격기준에 따라 정규담임과 비담임제(준교사) 구분

-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호봉제 도입

• 유보통합 시, 가칭 '통합 영유아교사자격취득' 과정 규정 마련도 순차적으로 도입.

- 유보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육학과제 도입 수순 필요

- 현직교사(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복지 관점의 연수제도 방안

•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수교육 실행

- 보수교육 기간, 시기, 방법 등의 현실적인 문제 검토

- 교육 교과목의 선택과 집중 필요(직무윤리를 비롯해 문제행동지도, 상호작용방법, 놀이지원, 부모상담기법, 자율장학, 아동행동 관찰 및 기록,평가 등 재교육 요구 높음)

- 교사 대 영유아 수 하향 조정으로 양질의 상호작용 기대
-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참여 의무화로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협력적 소통 유도
  - 일방적인 부모 요구나 민원 제기를 줄일 수 있는 상호 이해
  - 가정에서의 양육과 어린이집 보육의 일관성 및 연계로 영유아 성장의 긍정적 효과
- 보육교직원의 자구적인 노력과 성찰이 중요
  - 학부모도 교사다운 교사,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
  - 보육교사 스스로 전문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준비되었을 때 사회 인정감도 높아짐
-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모와의 갈등상황으로 교사가 법적 대응이 어려울 때 교직원 권익을 대리, 옹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가칭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담당관 제도' 신설 요청(정효정, 2021).
  -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시도에 1인씩 인력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신규 인력충원이 용이하지 않다면 기존 인력 겸직 무방
  - 변호사 촉탁제도로 대리소송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국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영유아는 각기 다른 출발선상에 놓여 지는 요인을 제거해야함.
  - 이원화된 행·재정체계는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의 원칙, 영유아 최선의 이익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행·재정지원의 일원화 촉구)

2) 특수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에 특수교육 인력배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만 3세 미만 무상).

- 영유아보육법은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

- 즉,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규정, 장애아동의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함.

- 보육교사 1인당 장애영유아 3인, 장애영유아 9명당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1인 의무배치 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21)에 의하면 장애전문어린이집(6,206명), 장애통합어린이집(4,959명), 일반어린이집(1,064명)에서 총 12,229명이 배치되어 있어(보육통계, 2020), 유치원 이용보다 2배 더 많음.

- 의무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부가 책임, 특수교사 및 치료사 배치, 교사 처우, 통학지원 차량,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 등 유치원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2017년 국가인권의원회는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교육부로 보냈으나 여전히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는 교육권이 배제되고 있음.

-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교부 시작, 2020년 기준 17,143명의 인력 확보(한국보육진흥원, 2022).

- 통합교육의 목표이고 주요 가치인 정상화 원리, 최소제한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완전통합과 완전참여를 추구. 장애교사의 인식제고를 비롯하여 개별화교육계획, 표준보육과정 수정 및 삽입학습 기회 제공 등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프로그램에 주력해야 함.

참고문헌

- 곽혁주. 2021. 특수아동 이해. 양성원.
- 김현진·정효정. 2015. 보육교직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94: 187-210.
- 보건복지부. 2020.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2021.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2021.
- 육아정책연구소. 2013.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보건복지부.
- 이경숙·신윤호·조숙환·김명식. 2013. 영유아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개발. 서울: 보건복지부.
- 임미혜. 2021. 아동건강교육. 수양재.
- 정효정. 2020.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논점. 『한국영유아보육학』 125: 203-239.
- 정효정. 2021. 보육교사 권익보호 저해 요인에 대한 논전과 제언. 『한국영유아보육학』 130: 137-157.
- 정효정. 2022. 어린이집 경계성 영유아 문제행동지도에 대한 논점과 대안. 『한국영유아보육학』 134: 125-151.
- 정효정. 2022. 아동권익 관점의 유보통합을 위한 논점과 제언.『한국영유아보육학』 136:77-101.
- 조용남·송미령. 2021. 보육교사의 권리침해 실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27: 1-20.
- 한국보육진흥원. 2022.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자료.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022. 유보통합 TFT회의자료.
- 한재금. 2021. 어린이집 전문상담사 배치 제도적 보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토론문.

03 토론문

프로그램 혁신을 중심으로

이 완 정
한국아동학회장 /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 2030년까지 SDG 4.2 이행을 위하여 건강, 영양, 돌봄, 안전, 포용적이고 양질의 유아기 학습 등과 관련하여 범 국가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 옴

○ 국제교육담론을 통해 전세계적 교육 변혁을 추진해 옴

- 교육은 인류와 자연을 결속하는 매개로서, 지속가능발전의 필수 요소임
- 교육권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장, 교육의 공적 특성 강조
- 양질의 영유아보육·교육은 사회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이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할 것. 가장 주요한 불평등이 영유아기 때 발생하기도 함

○ 우리나라는 K-SDG 4.2 지표를 구성하여 국제적 합의 이행 노력 중

- 4.2.2(초등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4.2.3(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의 확대를 위해 노력함
- 4.2.1(신체적인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특성의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저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와 4.2.4(긍정적인 가정양육과 학습환경을 경험한 5세 이하 아동의 비율)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외 합의된 개념 및 측정 도구가 부재한 현실임

□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꾸준히 증진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커리큘럼에서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비중을 키울 것

- 과거 영유아는 정서 이해, 정서 표현, 관계에서의 갈등 해결, 타인과의 사회적 기술 등을 형제자매, 가정과 친인척, 지역사회에서 배웠음. 현재 영유아의 주변 환경은 핵가족 중심의 가족과 취학 전 기관을 중심으로 강화되어 있음

- 영유아의 하루는 아침의 등원, 저녁의 하원 및 퇴근한 부모와의 시간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음. 영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영유아 기관의 커리큘럼에서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의 비중을 혁신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음

- 영유아의 배움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타인의 정서를 읽고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자신과 타인 간 정서의 교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나의 요구와 타인의 요구가 충돌할 때 서로를 조절하는 것, 갈등을 해결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등이 발달에 적합한 행동 기대, 발달에 적합한 교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부모와 교사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할 것

- 영유아 발달이 이들을 양육, 교육하는 성인의 정신건강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1]할 필요가 있음. 최적의 발달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짐

- 부모와 교사가 지속적으로 영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고 사려깊게 반응하고, 이들과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영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성장과 발달 궤적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에 비해, 오늘날 성인이 영유아와 보내는 시간과 공간은 사회적 고립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편재되어 옴. 가령, 부모는 핵가족의 형태에서 한두 명의 자녀와 지내며 이웃과는 교류하지 않음. 영유아 기관에서 교사는 장시간 영유아와 있지만 영유아를 대하는 행동 기대가 높은 데 비해 교사 간 관계, 교사와 사회 간 교류는 부차적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됨

1) https://www.zerotothree.org/issue-areas/early-development/

- 영유아와 이들 주변의 부모, 교사 등이 사회와 긴밀하게 교류하며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혁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각국의 현황과 성공적인 모델은 어떠한지 세계 회의 등에서 소통해 볼 필요가 있음

□ 영유아의 생애 공간은 비약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가 살고 있고, 살아갈 생애 공간은 변화하였음

- 영유아의 24시간이 오프라인 공간 중심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무한 확장됨. 영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와 성인세대는 그들이 어느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됨

- 영유아와 주변 성인의 디지털 문해력 역량이 요구됨. 이는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 관리로 해결되기 어려움. 영유아의 주체적인 목소리에 보다 진심으로 귀 기울임으로써 영유아기부터 함께 만들어나가는 방식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사용 정도가 높음.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 당면 과제 등이 세계 회의에서 공유될 필요가 있음. 삶의 맥락이 다른 사회들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배울 필요도 있겠음

○ 영유아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자아개념을 형성해가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의 생애 공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면서 자아(self)가 다양해질 수 있음. 마가렛 미드가 주관적인 자아(“I”)와 객관적인 자아(“Me”)의 상호주관적 이중 자아를 이론화시킨 이래, 온라인에서의 자아는 현실 세계와 유리된 아바타로서의 가상 자아로 간주 됨. 기본적으로 이중 자아는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져 왔음

- 하지만, 코로나19로 성인, 아동뿐만 아니라 유아도 온라인을 통한 교육 경험을 하게 되었고, 온라인에서 타인과 교류하는 경험을 직, 간접적으로 하게 됨. 이제 실제 자아가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으며, 온라인에서의 자아는 실제 인물의 페르소나로 활동하는 새로운 자아이며, 그러면서도 내면으로는 오프라인의 실제적 자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는 다면적 자아가 되었음

- 영유아기는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발달 시기에 맞는 자아개념이 생기는 시기임. 이 시기 확장된 생애 공간에서의 경험은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에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자아개념은 세상에 비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 영유아가 살아갈 세상의 확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영유아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자아개념을 확립해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됨

04 토론문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토론
-정책 수립과 행·재정 지원 측면에서-

이 병 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 /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오늘의 이슈: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능발전

1) 유아교육·보육의 미래-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경구 사무총장)

○ "**영유아기 교육**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열쇠**이다." - 마리아 몬테소리

□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2021.11)

○ 보고서 추진배경

- **2050년 너머의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교육담론** 촉진
- **전세계적 교육 변혁** 논의 추진

○ 교육환경 분석결과

- 현 교육체계의 문제점 발견: 교육 외부 환경의 불평등과 불확실성 심화
- **교육을 통한 변혁 필요**: 인류와 자연을 결속하는 매개, SDG의 필수 요소
- **교육 목적의 재정립 필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자체의 변혁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 **양질**의 평생교육, 학습권/ **공동재**(common good)/ **공공재**(public good)

○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제안

-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
  - 교육과정 및 공유지식/ 교사의 변혁/ 학교의 수호와 변혁

☞ 2050년 너머의 미래를 조망하는 '**재정립된 교육 목적' 실현을 위한** 제안으로

□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 양질의 유아교육: **모든 사회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 유아교육: **모두가 함께** 성취해야 하는 것

• 가장 주요한 불평등: 유아기 때 발생하기도 함

○ 유아교육의 형태: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 확대되어야 한다

○ **아이들: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접근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 '**미래 인류사회의 주인공**'으로 인식하는 접근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임

□ 교육변혁 정상회의 개요(미국 뉴욕, 9/16~19)

○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 학습 손실 회복 목적

• **교육을 최우선 글로벌 의제로** 만들기 위함

○ 5개 실천트랙(Action track) 및 챔피언 국가 선정

• 학습환경/ 지속가능을 위한 생활기술/ 교사/ ICT 교육/ 재정

○ 대한민국

• 교육의 미래 국회 포럼 개최/ 국가성명서 제출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의 과제와 역할 (문무경 실장)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4.2 와 국내외 이행 노력

○ SDG 4.2 지표

○ SDG 4.2 이행을 위한 노력

○ K-SDG 4.2 이행 현황

□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 개요와 주제(2022.11/14~16)

○ 제2회 WCECCE 개요

• **목적: 지난 10년간**의 ECCE (유아 교육과 보육) 분야의

① 발전 현황 점검 및 **주요 이슈 논의**를 통하여

② **향후 방향성과 세부전략**을 설정하고자 함.

③ 또한 본 제2회 WCECCE에서 발표 예정인 Tashkent Framework for Action 이행을 위한 ECCE부문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함.

- **주제**: **Early Investment** for **Better Learning** and **Brighter Future**
- **목표**: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CECCE)의 목표
  - 세계 각국의 SDG 4.2와 여타 관련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사항(progress) 축적**
  - ECCE 정책과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확산을 위한 핵심전략, 최신 연구결과, 우수 실제(practices), 혁신사례에 대한 **지식과 정보 교류**
  - 모든 영유아의 권리와 평생학습과 사회인지적 발달의 필수적 기초로서 양질의 ECCE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
  - SDG 4.2 이행 촉진 및 ECCE에의 정부와 파트너의 **투자 증대를**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규명하고 **추진 전략**을 개발 및 이에 대한 **합의**
  - 세계 각국이 모든 **영유아의 잠재력 실현**을 지원하도록 ECCE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기회 확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연대** 강화
- **대주제**와 **세부주제**
  1. Inclusion, quality, well-being : **모든 유아에게**
  2. ECEC workforce & caregivers :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통하여
  3. Program innovations : **모든 것을 잘 배울 수** 있게
  4. Finance, policy, governance : **국가의 재정, 정책, 행정적 지원** 방안
- **기대효과**
  - **향후 10년간** 전 세계 국가들의 육아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이정표로 작용**

□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변혁을 위한 과제**

○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 **포용적,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법**

○ **영유아 교원** 전문성 강화

○ **ECCE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혁신

○ **SDG 4.2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 재정 확보와 분배/ 부처간 조정과 협력/ 지방자치 및 파트너십 강화

2 토론자의 첨언

1) 미래시대에 대한 전망

☞ 오늘의 유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인류문명사회를 조망한다.

- **2050년 너머의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교육담론** 촉진과 **전세계적 교육 변혁** 논의를 추진하기에 앞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발견해야 할 문제들

□ 세계미래보고서 2055

○ **《유엔미래보고서》** 2017년 최신판 / 박영숙

-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제4차 산업은 **인공지능**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지난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을 통해 우리 앞에 바짝 다가온 미래를 두 눈으로 확인한 바 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 음성을 인식해 비서처럼 일정을 알려주는 스피커라든지 맥락을 파악해 정확한 번역을 해주는 번역 애플리케이션, 인간보다 더 빠른 반응속도로 사고를 방지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등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응용**되고 있고, **그 가치를 미리 알아본 사람들**이 미래의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다.

□ **《2050 거주불능지구》**-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

○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 지음 | 김재경 옮김 | 추수밭 | 2020년 04월 22일 출간

- **인간이 문제**였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 대가는 '인간'이 치를 것이다
-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다(12가지)
  - 12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
-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6가지)
  - 기후변화 시대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 **'하나'되어야** 한다
  - 인류 원리, **'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하나의 문명 / 우리는 행성을 선택할 수 없다

2) **오늘의 유아들이 직면**하게 될 우려되는 **미래시대의 문제들**

□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인간성 회복 문제**

- 기술문명은 **인간의 기계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 지금도 이미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알파고, 인공지능, 홍체 인식 등)
  - 기술문명은 매우 빠른 발전 속도로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인간 본연의 존재적 의미 상실** 우려에 대한 문제

- 이미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에 비해 인간의 **정신문화**는 매우 둔한 속도로 변화되어 왔다.
- **현대시대의 물질문화**는 더욱 **급속한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 현대인은 이미 기계문명 시대에 익숙해져 있다. 물질만능시대, 속물근성 시대, 소유욕의 시대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 현대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도나 파급 효과는 물질문명의 급격한 변화 분위기로 인해 매우 둔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따라서 미래시대에는 **인간 본연의 존재적 의미**가 **더욱 상실될 것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 인구문제 + 4차산업시대 문명에 따른 **삶의 조건 문제**

- **세계인구**의 급격한 **양적 증가**
  - 2016년 7월 현재 세계인구: 74억
  - 2050년 세계인구: 83억~109억 사이 (2012년 유엔 발표)
- **세계인구**의 **질적 수준 차이** 발생
  - 문명의 발전과 그에 대한 적응 수준
- 세계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수준 차이에 따른 **인류의 생활환경 문제**
  - **1차자원**의 급격한 고갈
  - **기후 환경**의 급격한 변화
  - **일자리 제한**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 **빈부 격차**의 심화

3) 요구되는 담론 : Early Investment for **Better Learning** and **Brighter Future**

□ **'아이들'에 대한 인식 재정립** 필요

○ 아이들은 **'미래 인류문명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

• 아이들은 그들이 살아갈 미래시대를 **스스로 변혁하고 창조할** 주인공이다.

• 아이들이 '세계의 일부'라는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 우리 어른들은 그들의 시대를 책임져줄 수 없다.

• 그들 스스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과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 **교육 목적의 재정립** 필요

☞ SDG **정신(패러다임)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자체의 변혁을 위해서다.

○ **지속가능한 삶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

•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

- 미래시대의 건강한 삶의 환경을 실현하는 삶

- 유능한 사람, 역량 있는 사람

○ **스스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 자기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실현하는 사람

•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현하는 사람

□ **교육목표의 재정립** 필요

☞ SDG **정신(패러다임)을 실천하는 생활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 **바르게 인식**하는 역량

•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힘

• 자기 관점에서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는 힘

○ **좋은 생각**을 하는 역량

• 모두가 함께 좋아지는 생각을 하는 힘

• 세상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힘

○ **좋은 말**을 하는 역량

•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대화와 소통

-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화와 소통

○ **좋은 행동**을 하는 역량

- 나, 다른 사람,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
- 나, 다른 사람, 자연을 힘들게 하지 않는 습관

□ **기술문명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 **기술문명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기술문명**을 추구해야 한다.

- **기술문명**은 인간의 **편리한 삶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 그 속도와 변화가 급격했고, 인간의 삶의 문화를 더욱 편리하게 보조해주었다.
- **기계문명**이 **인간의 삶의 일부를 대체**하게 되었다.
  - 그리고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인간의 삶이 기계에 의존하는 변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 인간이 기계에 속박당하는 상황까지 도래되었다.
- **기계문명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기술문명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기술문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4) **SDG를 선도**하는 **챔피언 국가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 **미래인류문명사회를 선도하는 인간교육** 챔피언

○ 미래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기르는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방식을 통하여

□ **SDG의 발전적 변혁을 주도하는 모델**로서의 **대한민국 교육정책**

○ 미래시대를 위한 교육정책 모델로서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미래인류문명사회 모델**로서의 **대한민국 선진문화**

○ 미래인류문명사회 모델로서의 허브 역할을 하는 선진문화의 표상이 될 것이다

05 토론문

초저출생을 극복하는 서울시 보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변 경 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1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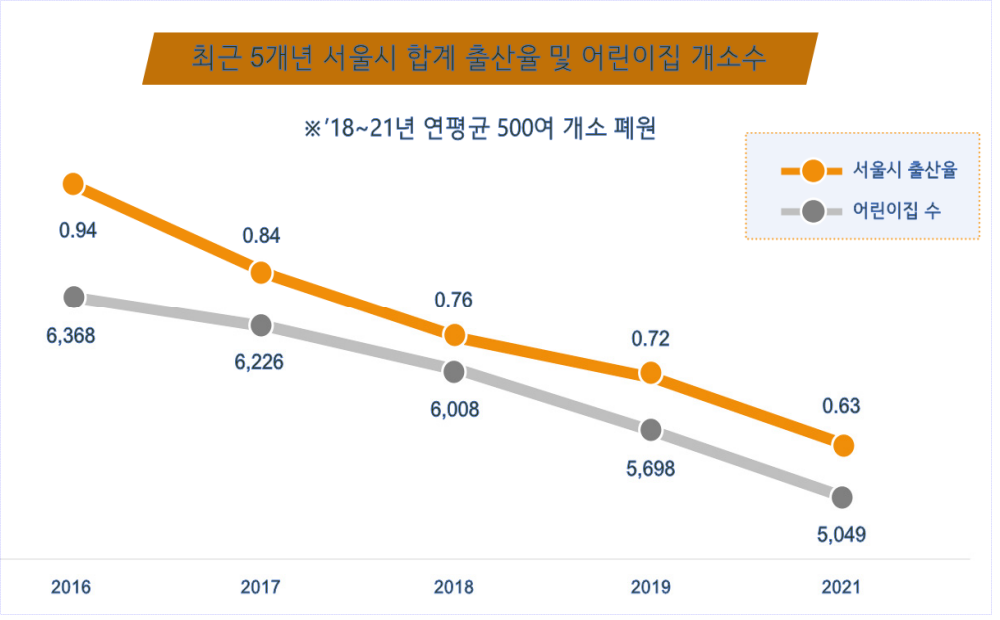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2회 World Conference on ECEC (WCECCE) 개최를 계기로 보육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 유아보육정책 논의를 위한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 교육은 전 생애 교육의 첫걸음을 떼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전 생애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공공의 노력과 공동재(common good)로서 교육의 강화를 강조한 것처럼, 공공에서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백년지계(百年之計)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저출생으로 보육현장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21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63명(전국 0.81)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어린이집 원아수 감소로 매년 50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변화, 누리과정 개편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 개선 정책 변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재택근무 등 부모의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보육 서비스 수요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기술 활용 요구 등 영유아 보육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급변하는 보육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21년 "서울시 중장기 보육 마스터플랜" 및 '22년"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활동이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통해 엄마·아빠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보육환경 변화 PEST 분석

분야	환경 변화 전망	시사점
정치(Political)	1 **보육교사 근로환경 변화** • 근로기준법 개정('18~'22) - 교사 휴게시간 보장('18) - 주52시간 근로 및 휴가 보장('21~22)	⇒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 휴가 보장 및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인력 수요 증대
	2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변화** • 아이·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19)	⇒ 아이·놀이 중심의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육 모델 마련 필요
경제 (Economic)	1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직업·근무 형태 변화** •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재택근무 증가	⇒ 고정된 시간대(7:30~19:30)에 제공되는 보육서비스 외의 다양한 시간대의 보육수요 발생
	2 **고령화 현상에 따른 영·유아 지원 예산 지속 감소** •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발생	⇒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의 증가로 영유아를 위한 지원예산 확보 애로
사회/문화(Social)	1 **저출생 현상 고착화** • '20년 서울시 출산율 0.64(전국 최저)	⇒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 가중
	2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취약보육 대상 증가** • 다문화, 장애 영유아 증가	⇒ 취약보육 서비스 수요 증대 및 장애·다문화 등에 대한 교직원의 역량 강화 필요
	3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인식확대** • 보육교직원(MZ세대)의 의식변화	⇒ 교사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 등 처우개선 요구 증대
기술 (Technological)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기술 활용 요구** • 모바일 기반으로 업무환경 변화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육서비스에 접목하여 활용 필요
	2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현**	⇒ 감염병에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 및 비대면 보육 프로그램 요구

2 서울시 보육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보육의 공공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집 앞 고품격 공보육」 시설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

- 2012년부터 현재('22.8월)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556개소를 확충(승인기준)하여 현재 2,214개소의 국공립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어린이집 원아의 49.7%(2명 중 1명)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
  ※ 타 시·도(평균 20.2%)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의 2배 이상임

-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적 국공립 확충(비강남권 최고 30억원 지원)
  ※ 어린이집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마련

○ 다시 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 추진

- 2009년부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견인하고 있음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현황
• 지원내용 : 인건비(국공립 수준) + 운영비·환경개선비(서울형 특화 지원) • 공인평가 : 서울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매 3~5년 재공인 평가 실시 • 공인현황 : 총 442개소('22.8월말) ※ 누적 공인현황('09~현재) : 3,002개소

-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및 평가 개선을 통해 참여 확대 추진
  ‣ (지원 개선) 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원장 지원 인상(1호봉→2호봉),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현원 40인 이상 시설→ 현원 21인 이상 시설) 등
  ‣ (평가 개선) 저출생, 코로나19 등 보육환경 변화 및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지표개선 (정원충족률 완화, 스마트 평가 도입, 중복지표 삭제 등)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목적 : 공보육 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보육서비스 질↑

- 사업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비중 '22년 36.4%(1,811개소) ⇒ '26년 52.2%(1,940개소)
  ‣ (서울형 어린이집) 시설비중 '22년 8.9%(443개소) ⇒ '26년 18.8%(700개소)
  ➡ '26년까지 국공립 확충과 서울형 공인 확대로 공보육 비중 71.1% 확대

□ (보육서비스 질 개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확대 추진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21년~)

- 국공립·민간·가정 등의 여러 유형의 어린이집들이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운영 효율을 높이는 서울시 新 보육모델임

- ('21)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 58개 어린이집 → ('22) 25개 자치구, 40개 공동체, 160개 어린이집 참여

- 생태친화보육·다함께보육(어린이집과 부모·지역사회 함께 참여 강조) 프로그램을 필수로 운영하며, 공동체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 지난 1년간 추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그간 개별 어린이집에서는 어려웠던 창의적인 보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시도됐고, 각 어린이집이 보유하고 있는 텃밭, 놀이터 등 공간, 차량(21개 공동체 차량 공동 이용 중) 등을 서로 함께 이용해 효율성을 제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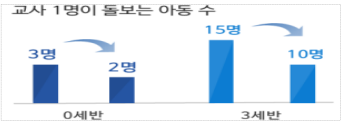
- 16개 공동체에서 (52명) 입소조정을 통해 입소 대기기간 단축하여 부모 만족도 제고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확대 추진 (※광역단체 최초)

- 아동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제고를 목적으로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법정 기준보다 축소

- 서울시는 국공립과 서울형어린이집 1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돌봄이 필요한 만0세반과, 갑작스럽게 밀집도가 상승하는 만3세반에 시범반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있음

'21년 110개소	→	'22년 160개소
• 국공립 110개소 대상 • 교사 1인 지원		• 국공립 110개소 + 서울형어린이집 50개소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효과 분석 결과 교사 1인당 아동 수 줄이니 안전사고가 75% 감소(월평균 2.94건 → 0.71건)하고,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3.25점 → 2.69점) 낮아지고, 부모가 체감하는 보육서비스 만족도(4.23점 → 4.49점)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 향후 추진 계획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프로그램 컨설팅, 모아어린이집 전담요원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모아어린이집 선정에서 탈락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실시 등 지속적인 확대 지원으로 '26년까지 120개 공동체로 확대 추진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자치구와 협력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사업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정부에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완화 및 보육아동 1인당 면적 개준 개선 지속 건의

➡ **저출생시대에 어린이집간 협력과 상생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하고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을 높여 안전사고 없는 보육환경 조성**

□ (틈새보육 확대) 야간연장, 장애, 다문화 등 촘촘한 틈새 보육 지원

○ 야간·주말·긴급보육 시설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야간)거점형야간어린이집** : 평일 16시~22시
  - ‣ 254개소 지정, 가정양육 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 대상, 야간교사 인건비 100% 지원

※ 일반 야간연장어린이집과의 차이점 : 유치원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료 시·구비 지원(전면 무상보육), 보육도우미 지원, 22시 이후 보육교사 야간근로 수당 지원

- **(주말)서울형 휴일어린이집** : 공휴일 9시~18시
  - ‣ 61개소 지정, 어린이집 연장보육 아동 대상, 아동 1명 보육시에도 교사 수당 지원

- **(긴급)365열린어린이집** : 공휴일 포함 24시간
  - ‣ 9개소 지정, 6개월 이상 만6세 이하 영유아 대상,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0세 전담반 신설, 장애아, 다문화어린이집 운영 등 취약보육 서비스 제공

- **0세 전담반 신설**('23년 200개반 시범지원)

-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한 전담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출생 초기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마련
- 교사 대 아동비율 1:3→1:2로 축소, 0세 1인당 보육료 지원, 기초 의학교육 등 영아돌봄 특화 교육 지원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 421개소 지정, 1,992명의 장애아 보육, 양질의 장애아 보육 제공으로 가정 부담 경감
- 서울시 특화 지원 내용 : 장애전담교사, 운전원, 장애아보육도우미, 치료사 인건비 지원, 운영비 및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17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 개보수

-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 다문화 아동 최소 5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120개소 지정
- 기자재 구입비(150만원) 및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월 30만원)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 부모의 노동형태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휴일·심야·평일 야간 등 다양한 시간대의 긴급·틈새보육을 지속적으로 확충

- 영아·장애아·다문화 아동 등을 위한 취약보육 서비스를 연구·개발하여 서울시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

□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교직원이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구축

○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 ’22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연차사용 보장 및 아동대상 공백 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위해 담임 대체·보조 상주 인력 지원

- 총 196개소에 전임교사 지원(일반어린이집 140개소 + 장애아 어린이집 56개소)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마련 및 안심상담실 운영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21.12.30)
  -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 규정

-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운영('22.4월~)
  - ‣ (심리 상담) : 전문상담사 채용(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위축 및 스트레스 상담 제공(85명 상담 제공, 7월 기준)
  - ‣ (법률·노무상담) : 변호사 및 노무사 연계하여 학부모 관계, 노사 간 갈등 문제 등 법적 부당한 문제 상담 지원(67건 상담 제공, 7월 기준)

○ 「종이서류 없는 어린이집」 단계적 추진 및 평가·점검 등 중복 해소

- '23년 회계서류 전산화 전면 추진 ※ '21~22년 시스템 개선 실시 및 단계적 시범 추진
  - ‣ 비대면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및 보육일지 작성, 서울형 스마트 평가 등 전산 시스템(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활용
  - ‣ 보건복지부 평가제와 서울시 평가간의 중복 해소 및 점검 양식 통일 추진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비 지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월 405천원~560천원, 어린이집 유형 및 연령반에 따라 상이)
  - ‣ 근무환경개선비(월 26만원), 누리과정 담임수당(월 36만원), 처우개선비(월 145~200천원)

- 반운영비를 인상 및 신설하여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비로 활용('22년~)
  - ‣ 정부미지원시설 영아반 운영비(월 25~30만원), 유아반 운영비(월 10만원)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안착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현장과 지속 협력

- 서울시 보육주간(10월 넷째주)을 지정·운영하여 보육교직원 및 보육현장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시선과 인식 변화 등 사회적 긍정 인식 확산 추진

□ (안심 보육환경 조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유아 건전 성장 지원

○ 포스트코로나 영유아 발달 실태조사('22. 6~10월)

- 서울시 거주 영유아(만0~5세) 6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 실시
- 전문가팀(소아정신과 + 발달심리학 + 언어학) 전체 조사결과 분석 및 연구결과 도출

○ 영유아 발달 검사·상담 허브,「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개소 추진('23년 3월 개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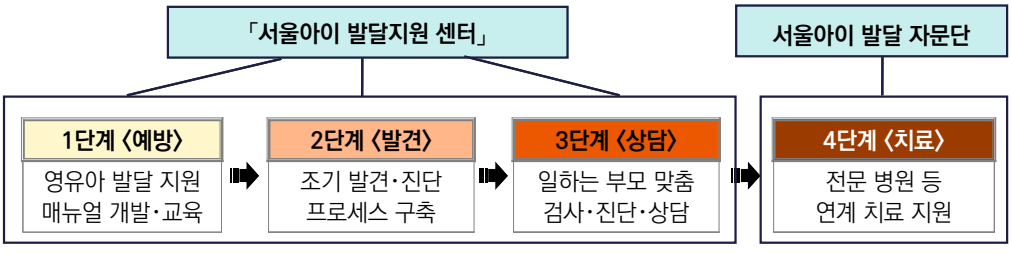
- 포스트코로나 시대 발달 지연 우려 영유아, 조기 발견·지원 프로세스 구축

〈평일 주간〉	▸ **사업내용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초기 발달진단 제공, 심화 검사 필요 아동 선별안내 등 - 보육교사 대상 영유아 발달 인식 교육(발달 관련 교사 고충 해소 지원)
➡ **조기 발견-전문가 검사 및 신뢰도 높은 진단-전문 병원 연계로, 맞춤 처방 원스톱 지원**	

- 영유아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온 라 인〉	▸ **사업내용 : 원거리 거주, 이동 어려운 가정에 온라인 검사·진단·상담 원스톱 서비스** ※평일주간 : 가정보육 / 평일야간 : 맞벌이가정 / 휴일주간 : 가정보육 및 맞벌이
〈야간·휴일〉	▸ **사업내용 : 거점형 야간연장 및 365열린어린이집 연계 발달서비스 지원**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전문 상담사 어린이집 방문상담·보육교사 발달교육
➡ **이용시간 다양화 및 물리적 거리 제약 해소로 민간시설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서울아이 발달 자문단'운영으로 전문 병원 등과 치료 연계



○ 향후 추진 계획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의 안정적 개원 추진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부모 참여도 제고로 영유아 건전 성장 지원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대응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지속 발굴 및 전국적 확산 추진

3 마치며

초저출생 시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경쟁뿐 아니라 어린이집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폐원과 보육교직원 일자리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유아들의 언어 및 행동 발달 지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계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이 여전히 풀어야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기(危機)라는 단어는 살펴보면 위험(危險)과 기회(機會)의 합성어입니다. 대응하기에 따라 위기가 재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보육정책들은 이러한 위기들을 분석하고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서울시가 2026년까지 새로이 시도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초저출생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아동과 부모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각계의 보육과 유아교육 전문가분들의 고견들을 모으고 힘을 합쳐 인구절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 토론문

토론문

오 필 순
서울시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 놀이와 휴식, 심리적 만족감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 되면 먼저 자연을 찾게 되고 놀이를 생각하게 된다. 놀이는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교육이고 밥이라고 한다.

성인들이 지금 어린 시절의 놀이감을 다시 찾고, 놀이에 시간을 보내고자하는 이유는 놀이를 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아이들의 삶엔 놀이가 사라지고 있다.

엄마의 품에서 안심과 포근함을 느끼게 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흙과 물에서 놀이하고 또래들과 어울려 지내게 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풍부한 감수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환경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다.

“A little attention to the environment can change our future”

요즘 생태교육이 학교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부터 '환경 보호'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포스터 그리기, 표어, 글짓기 이런 대회를 했던 기억이 있다. 그 때는 기껏해야 쓰레기 줍기, 수질 오염 막기 이런 정도였는데 요새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는 환경 보전을 넘어 사람과 자연, 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주변 생태자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고, 이를 보존하기 위

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적극적 사회참여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생태전환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생태전환교육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위해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 미래가 없는데 왜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 하죠?(그레타 툰베리)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것이며 교육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준비로서 미래교육은 본질적으로 현재의 교육에 대한 반성과 혁신을 내포한다.

유네스코에서 '2030의 세계'라는 전세계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30의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상실을 선정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청소년기후행동들이 요청한 것이 바로 교육의 생태적전환으로 곧 미래교육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비상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양식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제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을 전학교급에서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며 유치원 생태전환교육의 목표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하며 일상생활 속 실천을 통한 유아생태시민 기초역량을 기른다.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태전환교육 협력지원단 구성 및 운영, 교육주체 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인위적인 인간활동의 결과로서 기온의 극한성, 계절의 변화, 아열대 기후화, 열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생태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숲 문해력을 숲의 정의, 숲의 중요성, 숲의 보존방법과 숲에 대한 책무성을 갖는 것이다.

□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강조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를 권장하고 있고 놀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에 핵심기제이다.

(미래 4C: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operation)

- 그러나 미래 유아교육은 놀이만으로 부족함. 놀이를 넘어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가야함(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유아교육)
- 생태적 삶의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 때 미래 희망이 있음
- 생태적 삶이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삶 (먹거리, 재활용, 재사용, 생명존중 등)

□ 포스트 코로나시대, 숲과 자연에서 미래를 찾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는 현실을 성찰하며, 지구환경과 인간사회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생태교육의 한 실천으로 어린 시절부터 숲·생태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자연(숲)을 돌보기 위한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발발로, 아이들이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긴긴 시간을 보내고 있음.
- 포스트코로나 시대,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창의적인 교육공간의 중요성 : 숲과 자연
- 가장 생태적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숲과 자연 (예: 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왜 사라지는지, 벌들이 없어지면 지구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나와 유치원과 엄마아빠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살아있는 생태적 위기와 환경교육 가능)
- 숲과 자연중심의 생태교육: 창의, 인성, 놀이, 생명사랑, 탄소중립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천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숲'이며, OECD국가 중 4번째로 숲이 많은 나라임. 또한 자연 생태적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숲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음.

- 산림청 2012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하면서, 전국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였고, 2021년 현재 371개소 조성되어 있음.

- 친구들과 경쟁하고 너무 바빠서 놀 시간이 없는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주는 '숲과 자연, 생태교육'이 필요함

- 최근 숲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매우 증가하여, 연간 숲교육 참여 인원이 630만명이며 이중 유아가 210만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음.

- 산림청 주도로 숲교육이 진행되어 왔고, 유아교육에서 1990년대부터 생태유아교육, 발도르프, 자연친화교육, 숲유치원으로 이어져왔음.

- 이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늦출 수 없는 지구의 가장 시급한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 숲과 자연교육, 생태교육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야 함.

- 교육부, 교육청, 산림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주무부처의 협업된 정책이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

□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관련 계획

- 유아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적 유아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2021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생태전환교육의 실천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임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능발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